

‘성실 상환’ 금융취약계층, 은행권 문턱 낮아진다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전면 개편

‘크레딧 빌드업’ 본격화…신청 절차 간소화·대상 확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수월하게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이용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징검다리론이 정책·민간 연계를 강화한 ‘크레딧 빌드업’ 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금융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도입의 후속 조치다. 징검다리론은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

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이용한 차주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지만, 그간 대상이 제한적이고 신청 과정이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금원과 은행권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취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성실 이용했거나,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 가운데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통과하면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

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 15·17, 최저신용자 특별보증, 새희망출세 대출 등이다. 내년 1분기 신설되는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성실상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서금원은 ‘서민금융 있다’ 앱에 징검다리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실시간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은행 조회부터 사전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점처럼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은행별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앱에서 사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신용정보 변동이나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권은 시스템 연계와 전산 개발을 거쳐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026년 1분기까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전 취급은행에서 징검다리론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도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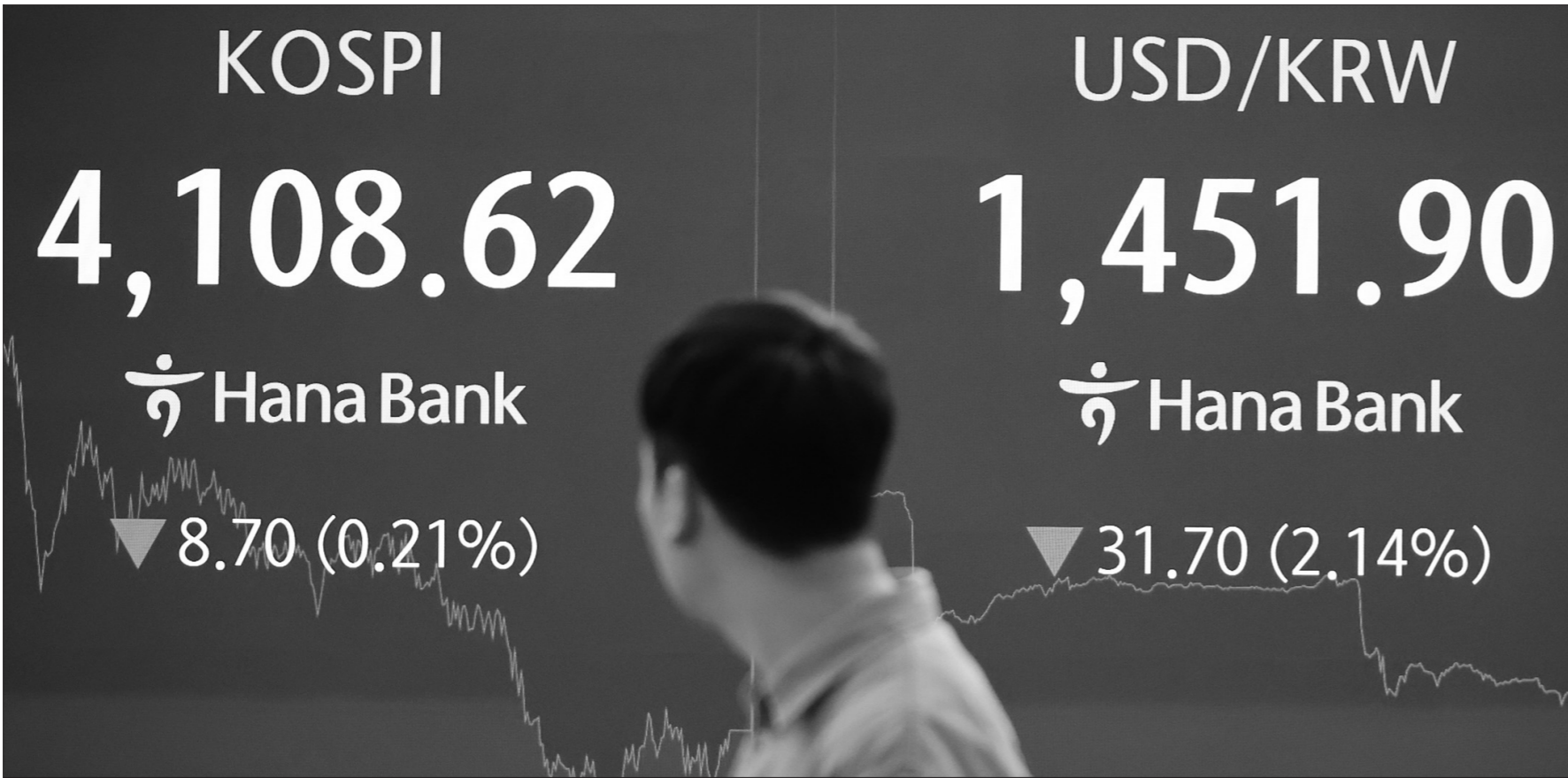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징검다리론 개편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의 은행권 안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지원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자립 능력 회복을 위한 정책 보안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징검다리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 있다’ 앱이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뱅크

환율 1440원대로 ‘뚝’…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

33.8원 내린 1449.8원…정부 안정화 조치 영향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고강도 대응에 1500원을 향해 가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하며 지난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위협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이 강도 높

은 구두개입 발언을 내놓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이후로도 계속 낙폭을 키워 주간 거래 마감 무렵에는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당시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로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국내의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외환당국은 최근 다양한 환율 대책을

내놔으며 특히 이날은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변곡점’을 예고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바닥이 없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계 흐름을 뜻하는 여울목에 빚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를 던졌다.

한편에선 최근 환율 상승 주 요인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을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조치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전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서가 전략적 환 헤지를 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5200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8.70p(0.21%) 내린 4108.62에 마감했다.

달러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도움이 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14% 내린 97.812다.

연합뉴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마련하고, 2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유류세 단례세를 인하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휘발유에는 ℓ당 492원, 경유에는 ℓ당 337.5원의 단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인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치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체감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쭉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하 전 서울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

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정부는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kg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46원인데 역시 15% 환 39.1원으로 낮춘 상태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광주은행은 내년 1월 7일까지 본점 1층 아트홀에서 제6회 조선대학교 대학원·디자인대학원 원우회 A.V.A 전시 ‘Fragments Become Whole’를 개최한다.

광주은행, 아트홀 대관…문화예술 지원

내달 7일까지 조선대 대학원·디자인대학원 원우회 전시

광주은행은 내년 1월 7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광주은행 본점 1층 아트홀에서 제6회 조선대학교 대학원·디자인대학원 원우회 A.V.A 전시 ‘Fragments Become Whole’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학교 대학원과 디자인대학원에 재학 중인 원우 및 졸업생 작가들이 참여한 기획전으로, 개별 작가들의 서사가 하나의 공간에 모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시각·섬유·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평면·입체 작품을 선보이며, 작품을 매개로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소통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 예향의 도시 광주의 정

체성에 걸맞게 문화단체와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본점 1층 아트홀 대관을 지원하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지난해 9월 아트홀에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카타르 파빌리온’을 선보이며 문화예술 1차 심사를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 2·3차 심사를 거쳐 입상 작가들에게 총 9000만원의 상금과 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내년 1월부터 0.25%p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가 연 3.90%(10년 만기)에서 최대 4.20%(50년 만기)로 조정된다. 다만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최대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3.75~4.05%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데다 국고채 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해외주식 팔고 국내투자하면 양도세 면제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도…외환안정·증시 활성화 기대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 촉진 및 외환시장 안정 제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세계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

금을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구조다. 투자 기간 중 국내 주식의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된다.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도 차등을 둔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면 해외주식 양도세 전액을 감면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주

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 매도 거래에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 제도를 100% 비과세로 확대해, 기업의 달러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외환시장 안정과 함께 국내 증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